

April 24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

- 디모데후서 3:5

하나님은 제사가 아닌 자비를 원하십니다. 번체는 때마다 반복되었습니다. 일부 백성들은 번체를 일종의 '면죄부'처럼 여겼을 것입니다. '제사드리는 날이면 다 용서받을 수 있으니, 다른 날은 마음대로 살자'는 영적 해이와 타협에 빠졌을 것입니다.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시적인 관계, 곧 얻을 게 있어 만나는 관계로 변질시켰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진지하고 지속적인 관계,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.

나에게 예배와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? 일주일에 한두 번, 나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까? 예배에 잘 참석하고,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까? 이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,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도와 자기 동력으로 운영되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.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내주하신 성령이 아니라 그 자신입니다.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리 없습니다. 종교의식과 윤리로 점철된 신앙생활은 고행으로 끝나기 쉽습니다.

혹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고 있는 않습니까? 하나님에 관해 무지하면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게 됩니다. 하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. 내 방식의 사랑과 예배와 헌신을 행하며 스스로 대견해하거나 스스로 책망하기를 반복합니다.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강요하기도 합니다.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존중이나 사랑은 없고 행위와 열심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(호 6:4)?

나의 신앙에서 경건의 모양과
능력이 모두 나타납니까?

- ① 내 삶과 신앙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?
- ② 나에게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의미입니까?